

용담댐 완공 20주년 기념 행사

진안군·국립전주박물관·K-water 용담댐지사, 업무협약... 특별전 등 공동 추진

진안군은 21일 군청 상황실에서 국립전주박물관(관장 홍진근), K-water 용담댐지사(지사장 김종래)와 용담댐 완공 20주년을 기념하는 사업을 공동 추진 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금년 용담댐 완공 20주년을 맞이함에 따라 진안의 역사·문화, 이주민의 삶과 추억, 용담댐과 수자원에 대한 미래지향적 발전상 등을 재조명하기 위한 사업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열렸다.

협약을 통해 용담댐 완공 2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 개최, 도록제작, 사회교육프로그램 등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말 국립전주박

물관에서는 특별전을 갖고 진안 용담 지역의 역사문화자료와 발굴조사 출토 유물을 비롯해 수물 전 마을과 지역민의 모습을 담아낸 예술작품, 생활용품 등을 전시할 계획이다.

순회전으로 기획된 특별전은 이어 오는 12월 말에는 진안역사박물관으로 자리를 옮겨 전시가 이어질 예정이다.

또한 전시자료와 내용을 종합하는 도록을 제작해 연구·기록 자료로 활용할 것이며 지역민들이 전시와 용담댐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사회교육 프로그램도 진행될 계획이다.

지난 2001년 국내 5번째 규모로 완공된 용담댐은 전북과 충남 일부지역

의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다목적 댐으로, 용담댐 건설로 형성된 용담호는 전북도민의 생명수로 여겨지고 있는 등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전춘성 군수는 협약식에서 "용담댐 완공 20주년을 맞이해 추진되는 이번 행사를 통해 다시 한번 지역민들이 용담댐의 중요성에 대해 제고하고, 용담댐에 대해 잘 알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역의 역사문화와 이주민들의 삶을 이해하고 공감해 이를 토대로 지역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계기가 함께 마련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한우지방공사는 전 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경영혁신 선포식'을 개최했다.

장수한우지방공사, 경영혁신 선포

나아갈 방향·지속성장·경영목표 담은 '경영혁신 10개항' 발표

장수한우지방공사는 전 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경영혁신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경영혁신 발표에서는 공사의 미션과 비전 달성을 위해 공사가 나아가 갈 방향과 지속성장 및 경영목표를 담은 '경영혁신 10개항'을 발표했다.

경영혁신 10개항의 주요내용은 ▲관계기관 및 내부소통 협력 강화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의식개혁 ▲비용 및 원가절감 ▲한우개량과 및 우수 유전자 개발 ▲TMR사료 개발 ▲장수한우

특별시조성 ▲실행중심, 현장중심, 고객중심의 경영 등으로, 사회의 요구에 적극부응하고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영혁신을 설정했다.

최진구 장수한우지방공사장은 "이번 '경영혁신 선포'는 공기업으로서의 기본적인 사명인 사회적 가치의 창출과 공익을 위한 것"이라며, "군민에게 사랑받는 공기업이 되기 위해 직원들 모두가 뜻을 모아 경영 혁신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코로나 극복 위한 생활개선 역량강화 교육 개강

한국생활개선무주군연합회 회원들 참여 천연염색 과제교육 진행

무주군은 21일 '세계여성농업인의 날' 기념, 코로나 극복을 위한 생활개선 역량강화 교육'을 개강했다고 밝혔다.

한국생활개선무주군연합회(회장 강신정)가 주최하는 가운데 22일까지 2차수로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생활개선 조직의 정체성과 활동방향 등을 재인식하고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재점검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천연염색 과제교육이 진행된다.

전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13대 수석부회장을 지낸 유연숙 씨가 강사로 초빙됐으며 21일에는 무주군 적상면과 안성면, 부남면 회원 35명, 22일에는 무주읍과 무풍면, 칠천면 회원 35명을



대상으로 자연을 이용한 천연염색과 가방 만들기 과정(이론과 실습)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읍면 회원 간 화합과 소통의 시간도 마련돼 호응을 얻었다. 무주군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참석자 및 발열여부 확인, 마스크 착용

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했다.

한편, 교육시간에 함께 한 황인홍 군수는 "여성 농업리더로서 미래를 개척하고 준비하는 모습들이 지역사회에 변화의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든든함을 느낀다"며 "이 자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마음을 달래고 여성농업인으로서의 역량과 긍지를 키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군에서는 건강가득 소득농업을 기반으로 한 무주다운 무주를 실현하고 농업인으로서 사는 긍지와 여성농업인으로서 사는 보람이 느껴지도록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드는데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경작 가능한 유휴지 필지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대부계약 신청·접수

진안군은 21일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및 지방재정을 확충하고자 경작 등 대부활용이 가능한 562필지(18만 3000㎡) 유휴지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9일 군청 홈페이지에 재산 공개를 게시하고, 군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해당 토지 읍·면사무소에 공유재산 상담·신고센터를 마련하여 대부계약 체결 등 민원상담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유휴재산이란 공유재산 중 미활용 재산으로서 지난 2019년부터 연 2회

군민들에게 공공자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지역 농업인으로 하여금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경작에 따른 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 현재까지 연간 1640만원(239필지) 세외수입을 올렸다.

진안군은 2018~2020년까지 연속 3년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총 9,800만원의 지원금을 교부받아 현장 중심형 실태조사 및 전문가 위탁용역을 실시하여 무단 점·사용, 불법시설물, 전대행위 등에 계약취소 및 원

상복구 등의 행정조치를 완료하였고, 무단 점·사용자에 대하여는 변상금 210건(1,451만2000원) 부과·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기능이 상실된 폐도·폐천·폐구거 등 대규모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점유자 및 인근 소유자에게 관련부서와 용도폐지 등의 행정조치를 거쳐 보존부적합 재산 등을 처분하여 16억6400만원(168필지) 지방재정확충 및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이바지 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약초산업 활성화 위한 간담회 가자

진안군은 21일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관내 약용작물 관련 대표자 5명,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운영자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계속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약용작물에 대해 재배를 활성화시켜 지역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고,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의 운영 활성화 방안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진안군은 산간지대의 비율이 70%로 높아 독활, 천궁, 당귀 등 경쟁력 있는 고소득 약용작물을 재배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생산된 약용작물의 판로처 확보가 어려워 농가들이 재배를 기피하고 있어 농가와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재배를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토의가 이어졌다.

특히 생산 약용작물을 수매해 소비자에 공급할 수 있는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나 운영사의 영세성과 운영자 변경 등으로 인해 미비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정홍기 농촌경제국장은 간담회에서 "약초농가와의 지속적인 간담회 마련으로 진안군 약초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약용작물에 대한 생산, 유통, 판매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진안군 약초산업이 대외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옛지명 복원 위한 전문가 워크숍 가자

진안군은 21일 진안고원 치유숲 세미나실에서 전북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과 함께 일분식, 한자식 지명에 대해 옛지명 복원을 위한 전문가그룹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는 (사)무형문화연구원 함한희 원장, 전북대학교 진안군 교수, 최규영·조용희 진안군 지명위원회 위원,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이근우 팀장 등 지명 관련 전문가 및 군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해 옛 지명 복원(안)에 대해 토의했다.

최규영 지명위원이 지명 복원안을 총괄 발표한 후에 4개 분과로 나눠 검토하는 시간을 갖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가기 위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등 활발한 토의가 이뤄졌다.

군은 워크숍에서 검토된 결과를 토대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2차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최종 선정된 안건은 지명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영유아 대상 '북스타트' 사업 진행

장수군이 독서를 통한 영유아의 성장 발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북스타트' 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2월부터 시작한 북스타트 사업은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는 취지로 그림책과 구성품이 수록된 꾸러미를 영유아와 양육자들에게 배부함으로써 사회적 욕구를 지원하고 영유아기부터 책과 친해질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6월 말 기준 현재까지 35여명의 가정이 혜택을 받았다.

북스타트 꾸러미 안에는 북스타트코리야에서 선정된 그림책 2권, 가이드북, 퍼즐, 가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원대상은 장수군에 주소를 둔 0~18개월 영유아이며, 영유아 거주지와 출생일을 확인 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보호자 신분증을 지참해 지역 내 각 도서관 6개소(군립도서관(장계), 장수, 산서, 번안, 천천, 계북)에서 도서관 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장수=고판호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